인류 최초로 단 두개의 핵폭탄이 실전에 사용된 전말기 (상)

핵폭탄의 공포에 대하여 이로부터 인류를 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핵확산 금지조약이 있고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기관을 통하여 핵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핵무기의 효과적 통제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이 실제 전쟁에서 쓰여지고 목격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에 투하된 두발의 핵폭탄 밖에 없다.

지금도 핵의 위력을 표현할 때 히로시마형 폭탄의 몇배라는 식으로 표시되는 것은 실제의 파괴력을 보여준 기회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두곳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사이에 핵무기 개발 중지를 놓고 줄다리기식 협상이 2년을 끈끝에 타결을 보았지만 동 협정의 실현까지는 아직도 멀고 험한 길이 남겨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핵무기의 실상을 알기 위해 미군에 의한 핵공격의 과거를 한번 더듬어 보는 것도 뜻이 있을 것 같아 두번으로 나누어 핵폭탄 공격실기를 게재한다. 〈편집자주〉

히로시마 공격

전쟁종결의 촉진

미국이 원자폭탄을 제조하여 일본을 공격하려는 핵폭탄 개발계획은 맨하탄계획이라고 이름붙여져 일찍이 1942년부터 시작되어 필요한 과학자와 기사들 그리고 기능공들로 된 기술부대가 비밀기지에서 삼엄한 경계하에 추진되었고 미국내에서도 이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 채널을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와같은 극비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1945년에 들어서자 핵폭탄이 실용화될 수 있는 길

〈폐허가 된 히로시마 상공을 날고 있는 B-29초중폭격기〉

이 열리고 일본에 이 폭탄을 쓰기 위해 실전용 폭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미군 당국은 1945년 7월 16일 뉴 멕시코의 사막에서 실험한 결과 그 위력이 증명되었으며 폭탄으로 제조하여 운반, 투하할 수 있는 실용계획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 핵실험보다 앞선 7월 15일부터 독일의 포츠담에서 미·영·소 3개국 수뇌가 모여 독일패전후의 유럽 처리문제와 일본과의 전쟁종결을 두고 그 처리 계획등이 논의되었다. 이때 미국으로부터 핵폭발 실험의 성공이 알려졌고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영국의 처칠 수상에게 신형폭탄을 일본에 사용할 것에 대해 제안하여 이것을 쓰기로 결정했다.

이때까지 원자폭탄이 가공할 위력을 지닌 것은 양국지도자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한 파괴력의 내용이나 방사능 피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단지 일반 민간인까지 대량으로 살상할 이 무기의 사용에 의해 일본본토 상륙작전에서 초래되는 미군의 손실을 줄이고 종전을 하루속히 앞당긴다는 원칙에 대하여 합의했던 것이다.

소련의 스탈린 수상과는 소련군이 일본 공격에 참가한다는 합의를 얻고 여기서 우리나라의 북위 48도선이 소련군의 남진 경계선으로 책정되었던 것이다. 여기까지는 핵폭탄의 실험 성공과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공격을 실시한다는 정부 고위층의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이다. 그리고 이 결정은 하나의 요식행위로 간주되는 부분이다.

원폭부대 창설

이런 고위층의 결심보다 앞서 핵폭탄을 제조 실용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해지자 1944년 12월에 미국 본토의 유타주와 네바다주의 접경에 있는 윈도버 기지에서 역사적인 원자폭탄 공격부대가 비밀리에 창설되어 맹훈련을 시작했다.

제509혼성비행단이라고 불리는 이 전략 공군부대는 보통 정규의 B-29 전략폭격기 부대는 3개 비행중대로 구성되고 45기를 정원으로 편제되는데 비해 이때 새로 창설된 509비행단은 불과 15기의 B-29 전략폭격기로 된 1개 중대 규모의 부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특수부대에는 별도의 보급·정비부대가 따르고 그 외에 무엇인가 특수작업을 맡은 기술자로 된 기술업무중대, 탄약중대, 심리전 요원, 항공수송중대, 헌병대까지 달려 장교 225명, 하사관·병사등 1,542명으로 구성되고 B-29를 개조한 특수 폭격기로 폭탄투하 실험과 해상비행훈련등 그때까지의 보통 폭격훈련과는 다른 훈련을 시작했다.

맨하탄계획에 의해 개발되는 최초의 실전용 원자폭탄은 두가지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우라늄 235로 만든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프루토늄 239로 만든 것이었다. 폭파실험에 쓰인 것은 프루토늄 제였고 이것은 나가사끼에 투하되었으며 우리늄제의 것은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다.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중폭격기로 초공의 요새(超空要塞)라는 별명으로 통한 B-29가 가장 큰 폭격기였지만

원자폭탄을 싣고 날아가기 위해서는 기체를 일부 개조하여야 했다. 특히 두가지의 원자폭탄은 그 모양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두가지를 다 실을 수 있게 개조해야 했다. 따라서 폭탄창의 너비, 폭탄을 달아매는 현가장치, 투하장치, 적재장치등을 모두 바꾸어야 했다. 이러한 기체의 개조는 보잉사

공장에서 갓 출고한 최신예 B-29를 이용, 1944년 12월까지 15기 모두 개조를 끝내고 509 비행단에 인계되었다.

509특수 비행단의 단장에는 유럽전선에서 폭격기 조종의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B-29기의 테스트 파이롯인 티벳츠대령(당시는 중령)이 임명되었고 원자탄을 투하하기 위한 폭격부대라는 사실은 부대장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이들 부대원들은 미국 본토에서 24회의 모의폭탄 투하실험을 했고 그후 다시 46기의 B-29를 개조하여 태평양에서와 일본 본토에서 모의폭탄을 이용 투하훈련을 계속했다.

개조된 B-29중폭격기는 신식 프로펠러와 신형엔진을 탑재하고 꼬리부분의 기관총좌를 제외한 자체방어용 무장을 모두 철거하여 비행성능을 향상시켰다. 단지 폭격 조준용 레이더의 개발이 늦어져 항법용 레이더를 그대로 사용했다.

처음에는 독창적 방식으로 B-29 1기가 단독으로 폭격하는 안이 우세했으나 연구결과 전략적 측정을 위해 미리 기상관측기가 선행하고 그 뒤에 폭탄 장착기와 무전발신장치(라디오 존데)를 투하하는 다른 1기와 고속도 사진 촬영기등 3기를 편대로 보내는 안이 채택되어 보통의 폭격시와는 다른 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본토에서 투하훈련

보통의 폭격전에서는 폭격기 편대가 목표지역 상공에 도착하여 편대를 풀고 한대씩 차례로 목표지점에 집중하여 폭탄을 투하한 뒤 그대로 목표지 상공을 통과하여 이탈하는 식이었으나 509 비행단의 훈련은 달랐다.

먼저 4.5톤의 의제폭탄을 싣고 고도 9,800m까지 올라가 눈으로 목표물을 조준하여 폭탄을 투하한 뒤 수직으로 급강하하여 30초 후 150도 반전하여 표적으로부터 비스듬히 16km를 이탈하는 식의 폭격법을 미국 본토의 사막에서 익힌 뒤 일본 본토에서 총 마무리 훈련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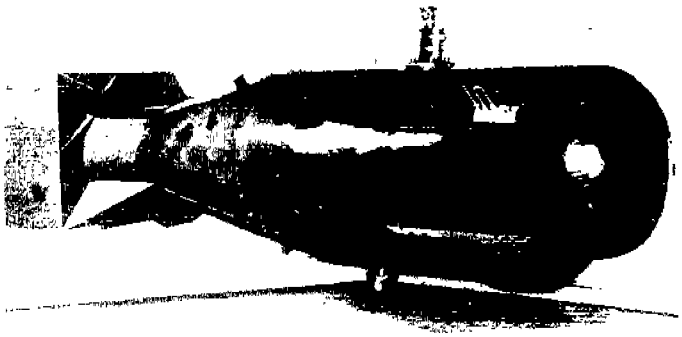
일본 본토에서 사용하는 폭탄은 의제탄이 아닌 실물과 똑같은 모양을 한 것으로 그 안에 든 폭약만 원자탄이 아닌 보통의 파괴용 폭약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별명을 펌프킨(호박)이라고 불렀다.

제509 비행단은 공식으로 제20 항공군(사령관 루메이 소장) 소속으로 펌프킨 작전을 특별 폭격작전(Special Bombing Mission)이라고 불렀다.

1945년 7월 16일, 최초의 프루토늄 239에 의한 핵분열 폭발의 시험이 성공하자 원자폭탄을 조립할 자재를 실은 순양함 인디아나폴리스호가 샌프란시스코 군항을 떠나 남태평양의 테니안 섬을 향했고 509비행단은 이미 6월중에 테니안섬의 북부 비행장으로 이동해 훈련을 시작했다.

훈련은 먼저 7월 20일 새벽 B-29 10기가 일본 본토의 후꾸시마, 고오리야마, 나가오까, 도야마등지에 펌프킨폭격을 실시하러 갔으나 그중 8기는 날씨가 흐려 구름 때문에 목표를 못찾아 아무데나 폭탄을 던지고 돌아오고 도야마에만 2발의 펌프킨을 투하했으나 전과는 대단치 않았다.

두번째는 7월 24일에 역시 10기가 출격, 니이하마, 고오베, 아마가사끼, 욧가이찌등지를 향하여 목시(目視)조준으로 펌프킨폭탄을 투하했다. 그런데 각 폭격기는 명령된 지점의 목표를 찾지 못하면 폭격 가능한 도시를 찾아 적당한 목표를 공격하도록 명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중 1기는 아마가사끼의 목표를 찾지 못하여 인근 오오쓰시에서 아무것이나 공장으로 보이는 큰 건물에 펌프킨 폭탄을 투하했다. 이것이 명중하여 도오레공장을 거의 전파하고 사망 16명, 부상 다수의 피해를 입힌



〈히로시마에 투하된 우라늄 235 원폭, 리틀보이. 지름 71cm, 길이 3.05m, 무게 약 4톤〉

외에 도오레 공장을 가동불능으로 만든 전과를 올렸다.

일본측의 자료에 의하면 오오쓰시 상공에 이른 B-29 1기가 대형 폭탄 한개를 투하해 이것이 도오레 공장에 맞아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고 쓰여 있으며 B-29 1기가 반전하여 폭격했다고 쓰인 것은 훈련 방법이 투하직후 반전 대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만 일본측이 당시로서는 그런 사정을 알 길이 없었던 것이다.

제3차 훈련 출격은 7월 28일로 잡혀 이때는 일본의 중소도시가 몇곳 지정되었을 뿐이었다.

원폭투하 대상 도시 선정

여기서 주목할 일은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예정된 수개 도시는 이미 7월말부터 일체 폭격을 하지 않고 그 대로 온존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원자폭탄의 폭격 파괴 효과를 보다 정확히할 필요 때문에 취한 조치로 보인다.

워싱턴의 고위 군사 당국이 원자폭탄의 투하 예정지로 정한 곳은 교또, 니이가다. 히로시마, 고꾸라의 4개 도시였고 이 단계에서는 나가사끼가 빠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8월 1일에도 나가사끼에는 B-29 수기가 공습을 했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원폭 사용 대상으로 선정된 전기 4대 도시중 8월에 들어서 교또를 빼고 대신 나가사끼가 추가되었다. 교또는 일본의 옛 도읍으로 문화재가 많아 보존 가치가 있어 파괴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조선소와 어뢰제조공장이 있는 나가사끼가 추가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45년들어 7월까지의 사이에 일본의 중급 도시까지 거의 폭격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미 제20항공군 작전부에서는 예하의 5개 폭격항공단 소속 860기의 폭격기에 대하여 폭격대상 목표의 할당에 여간 고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7월만 해도 공격대상은 연 46개도시 폭격 참가기수 연 5천기, 투하폭탄량 3만6천톤으로 일본은 이미 중소도시도 거의 자취를 감추고 없었으며 그야말로 "나무와 종이로 된" 일본의 도시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니 509 특수비행단의 훈련용 대상도 마음대로 고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극동항공군, 제8항공군등 다른 항공군까지 일본으로 모여들면 이제 일본 열도는 폭격할 곳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그런데다 일본의 방공전선은 허점 투성이었다. B-29용의 대항공탐지 무기의 개발이 늦어져 B-29의 내습에는 속수무책이었으며 항공연료가 고갈되어 그나마 몇대 남은 항공기가 제대로 날지도 못할 형편이었고 훈련된 조종사가 없어 공중공격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펌프킨 폭격은 소수기로 간간이 하는데다 손해도 경미하여 일본군은 소수기 공습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을 놓는 상태가 되었고 B-29의 고고도 내습은 지나간 뒤에야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상태로 일본은 이미 방공기능이 마비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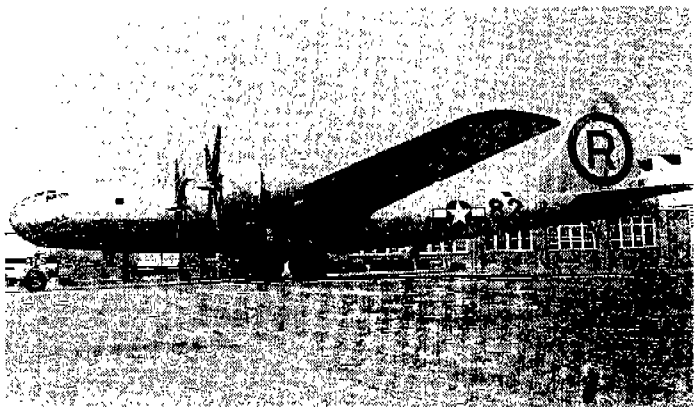
역사적 투하 전말

현지전개와 폭격행

일본 본토의 중급 도시를 대상으로 실지훈련을 마친 펌프킨 폭격대는 테니안 북부 기지에 전개하여 명령만 대기하고 있었다.

8월 1일에는 제20항공사령관 루메이 소장이 공군참모장으로 영전해 가고 후임에 트웨이닝 중장이 새로 부임해 왔으나 작전부장 몽고메리 대령은 그대로 있었다.

8월 2일 14:00시에 역사적인 원폭 공격 명령이 발령되었다.



〈역사적인 최초의 원폭 탑재폭격기 제1호기 이노라 게이호〉

동 작전명령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1차목표 : 히로시마시 공업지구

2차목표 : 고구라 조병창 및 시가지

3차목표 : 나가사끼 시중심부

△일시 : 1945. 8. 6 08:15 전후

△부대편성 :

기상 관측대 3기, 각 목표별 1기, 1시간전 출발, 폭격대 3기, 예비기 1기(유황도 대기)

△비행경로 : 유황도경유, 미하라시를 거쳐 히로시마에 진입

△폭격고도 : 2만8천~3만 피트

△폭격속도 : 수정지시계기속도=CIAS 시속 200마일(해면상 시속 500km에 상당)

△폭격조건 : 목시(目視) 확인 폭격에 한함. 주목표상공을 통과한 뒤가 아니면 공격목표를 변경할 수 없음.

위와 같은 요지는 지금까지의 훈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다.

폭격대 3기중 지휘관기는 역사상 첫 원자폭탄인 우라늄 235 폭탄(리틀보이)용으로 개조된 B-29 식별번호 82호, 애칭 이노라 게이호로 티벳츠 대령이 조종했다. 2번기는 자동무전발신기(라디오존데) 투하임무를 띄고 동행하며 3번기는 폭발시의 불덩어리를 고속촬영할 임무를 띄고 동행하게 되어 있었다.

주 임무를 수행할 이노라 게이호의 조종에는 훈련단장인 티벳츠대령이 직접 조종간을 쥐고 있고 부조종사, 항법사, 기관사, 통신사등 보조 임무도 모두 베테랑급이 맡아 새벽 1시 45분 기지를 이륙했고 이어 다른 2기도 이륙했다. 이들 이외에 또 한사람 중요한 임무를 띈 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그는 로스 알라모스에 있는 원자력연구소의 무기국장 퍼손슨 해군대령이었다.

퍼손슨 대령의 임무는 이노라 게이호에 실려 있는 인류 초유의 원자폭탄인 리틀 보이가 이륙시의 실패 때문에 잘못 폭발하여 테니안 섬 전체를 날려 버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따로 떼어 놓은 기폭장치(起爆裝置)를 비행중에 다시 맞추어 작동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무사히 비행기가 기지를 이륙하여 예정 고도를 유지하면서 수평비행에 들어 가자 곧 기폭장치의 결합을 시작하여 이내 작업을 끝냈다. 그리고 작동되는지 시험해 보니 이상 없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스위치를 끈 뒤에 곧 테니안 섬의 기지에 "판사가 일하러 갔다"고 무전으로 타전했다. 판사는 퍼손슨 대령의 암호명이고 "일하러 갔다"는 기폭장치가 제대로 작동 되도록 조립을 끝냈다는 암호였다.

때는 1945년 8월 6일 새벽으로 6시간 반에 걸쳐 2,570km를 날아 싣고 가는 원자폭탄 제1호(리틀보이)를 투하하고 다시 6시간을 날아 돌아와야 하는 12시간이 넘는 긴 여정을 날고 있는 기내에는 조종간을 잡은 티벳츠 대령과 기폭장치를 조작하는 퍼손슨 대령 외에는 실려 있는 폭탄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기상관측 임무를 맡은 B-29 3기의 선발대는 이미 한시간 전에 기지를 떠나 일본을 향하고 있었다.

이날 07:09—일본의 중부군관구 사령부는 적 대형폭격기(미군기) 3기가 북상중이라고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가 6분후에 해제했다. 이것은 2기가 고꾸라와 나가사끼를 향하는 길이고 다른 1기는 이미 히로시마 상공을 통과하여 빠져 나갔기 때문에 경보를 해제했던 것이다.

07:30—폭격대는 기상 관측기로부터 히로시마 상공의 기상은 양호하다는 무전을 받았다. 이때는 아직 해상을 날고 있었다. 시고꾸 상공을 통과할 무렵 퍼손슨대령은 원자폭탄의 신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폭장치의 회로를 확인한 뒤 기폭장치의 스위치를 ON으로 해 놓았다.

08:09—폭격대 3기는 미하라(三原)시 상공을 좌회전하여 CIAS (수정지시계기속도)시속 200마일로 히로시마를 직선으로 향하여 진입했다.

08:06—후꾸야마에 있는 일본 방공감시초소는 이 폭격대 3기를 발견 중부군관구에 보고했으나 공습경보 발령까지는 수분을 요하여 NHK가 방송했으나 자세한 방송내용, 즉 히로시마에 침입한 미군대형기 3기가 서쪽 상공으로 침입, 탐조등부대 정보에 의하면 그중 2기는 약간 남쪽 상공을 서쪽으로 비행, 그밖의 1기는 따로 시 중심부 부근으로…… 하는 방송 도중에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이 퍼져 방송은 중단되고 말았다.

생지옥의 연출

미군측 기록을 보자.

이륙후 약 6시간이 지난 08:11 히로시마 상공에 도달한 이노라

게이등 3기의 B-29 편대는 쾌청한 하늘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폭탄 투하에 들어 갔다. 먼저 마거드 대위가 조종하는 3번기가 먼저 편대를 떠나 현 히로시마시 안게이구(安藝區) 상공의 사진촬영 위치로 향한 뒤 스위니 소령이 조종하는 2번기가 히로시마 후쭈(府中) 상공에서 자동무선발신기(라디오존데) 2개를 투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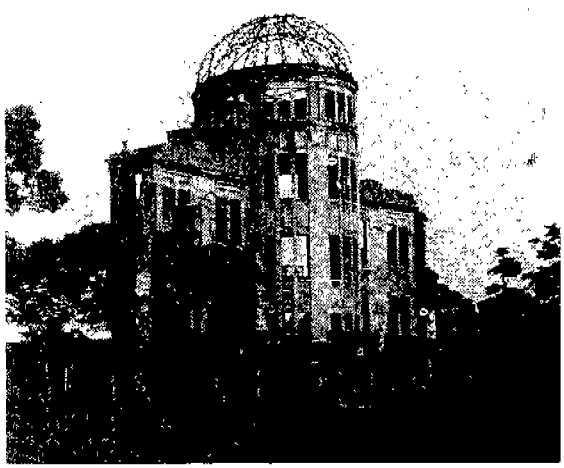
그리고 그보다 10초 후에 이노라 게이호가 기린맥주공장 상공에서 리틀 보이(우라늄 235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반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히로시마의 일본 방공군당국이 서쪽상공으로 침입한 2기의 적기가 3개의 낙하산에 달린 물건을 투하한뒤 1기는 선회하여 동쪽으로 빠져 나가고 다른 1기는 급강하로 수직 선회하여 남쪽으로 빠져 나갔다는 기록은 라디오 존데 2개와 원폭 1개등 도합 3개의 낙하산이 펴진 것을 본 것이며 그중 급강하 선회하여 남쪽으로 빠져 나간 비행기가 원폭을 투하한 이노라게이였던 것이다.

미군측의 기록은 08:15에 기장인 티벳츠 대령이 폭격수에게 폭탄투하를 명했다. 폭탄(리틀 보이)는 낙하산을 달고 9,600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낙하산이 펴지고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 이노라 게이호는 급강하 선회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투하후 약 50초가 지나서 폭탄이 낙하산에 의해 천천이 내려와 고도 600m에 달했을 때 번쩍하는 섬광과 더불어 빨간 불덩어리가 보이고 아울러 천지가 진동하는 폭발음이 나면서 거대한 버섯 구름이 치솟았는데 폭발의 충격은 이노라 게이의 현장 이탈에 영향을 미쳐 티벳츠 기장이 시급히 기체를 선회시켜 폭풍을 피하려 했으나 그래도 상당한 폭풍을 받아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히로시마의 원폭구름. 사진촬영에 실패하여 버섯구름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여 히로시마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는 훈련때와 같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졌다. 다만 사진촬영의 임무를 띈 3번기가 불덩어리를 찍은 사진이 기지에 돌아와 현상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불덩어리는 물론 버섯구름까지도 제대로 찍은 사진이 없는 것이 유감스럽다. 폭격 4시간 후 수직사진 촬영을 위해 B-29를 개조한 F-13 사진정찰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갔으나 원자구름(사실은 원자탄 투하로 인



〈악몽의 증거로 보존되고 있는 히로시마의 원폭돔의 앙상한 모습〉

한 먼지와 화재의 연기 등이 섞인 것)에 시야가 가려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한다.

투하 4시간후에 구름·연기·먼지등 때문에 하늘에서 사진을 찍지 못할 정도라면 히로시마 시내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이때의 히로시마 시내는 글자 그대로 지옥의 형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번쩍하는 섬광과 폭발에 의한 폭풍의 충격 때문에 단번에 약 7,800명의 시민이 죽었고 약 5만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약 4,800동의 각종 건물이 파괴되고 2만동 이상의 건물이 대파, 반파되었다고 일본측은 기록해 놓고 있다.

이날 히로시마 시민들은 앞서 말한대로 기상관측기 침입에 의한 경계정보가 07:25에 해제되자 모두 안심했고 2차 침입은 군당국에 보고되고 NHK가 적기 침입을 방송하기 시작했을 뿐 공습경보는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안심하고 조반을 먹거나 출근을 서둘고 있었다.

히로시마 주둔군 병영에서는 아침을 먹은 뒤 신병들을 연병장에 모아 놓고 웃통을 벗은 뒤 체조를 하다가 전원이 그자리에서 화를 입어 즉사했으며 민간인의 대부분은 폭풍에 의해 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사람이 더 많고 거대한 불덩어리에 화상을 입어 뜨거워 못견디게 되자 물을 찾아 히로시마 시내를 흐르는 강물로 뛰어 들어 시체가 강물을 막았을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히로시마시 근처 사람들은 원자 폭탄의 별명을 "피카 동"이라고 했는데 이말을 직역하면 "번쩍 쾅"이라는 뜻이다. 섬광이 번쩍하자 쾅하고 폭발했다는 말이 된다.

여하튼 "피카 동"의 효과는 무참한 지옥의 양상 그것이었다.

이노라 게이호 부조종사였던 로버트. 루이스대위는 뉴욕 타임스지의 위탁으로 쓴 기록에서 "폭발 직후에 보인 거대한 불덩어리"에 대하여 "그 처절한 모양은 도저히 말이나 글로 쓸 수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다만 "어악!"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결국, 기상관측기가 아무일도 없이 그냥 통과한 뒤여서 히로시마 시민들은 전혀 경계하지 않고 방심한 가운데 요격기나 대공포화등 일체의 방해를 받은 일 없이 유유히 평소의 훈련대로 임무를 수행했고 히로시마 시민들은 뒷통수를 얻어 맞은 꼴이 되었다.

폭격직후의 히로시마 시내에는 피해민을 구조하거나 질서를 유지할 조직적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란 아무도 없었다. 시민 전부가 피해자여서 어디를 가야 숨을 쉴지 몰라 몽유병자처럼 헤매었다고 당시의 생존자들은 술회하고 있다.

시내 어디를 가나 타다 남았거나 구어진(불에 데인 정도가 아니라) 시체와 무거운 것에 치어 찌그러진 시체들이 널려 있고 아직 죽지 못한 부상자들의 처참한 비명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불에 데인 자국에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을 찾아 강으로 모여 들어 강물에 뛰어 들고 있었다.

당시에 찍은 사진을 자세히 보면 거의 벌거벗은 사람들이 누더기 쪽을 걸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불에 데어 벗겨진 피부가 너덜거리는 것으로 가려워 긁은 때문에 피부가 벗겨져 버린 것이라고 한다.

일체의 전신 전화 전기가 끊어져 그 처참한 소식이 인근 시군을 통해 중앙에까지 알려지는데 거의 하루가 걸려서야 구호와 치료가 시작되었다.

이 단 한발의 핵폭탄은 당시의 파괴와 사상자뿐 아니라 방사능 피해라는 무서운 후유증에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음해야 하는 죄없는 형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전략폭격조사단이라는 대규모 조사단을 조직하여 일본 전국에 걸쳐 전쟁 피해와 그러한 피해의 직접·간접 원인, 일본의 정치적 과오, 일본산업의 허실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철저한 조사에서도 핵폭탄의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전후 50년을 계속하고 또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에 대하여 미쳐 몰랐다.

다만 핵폭발에 의해 우라늄, 프루토늄 등에 있는 방사능이 인체뿐 아니라 생명체에 치명적이고 유전적인 영향을 입힌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후 소위 원자병이 연구되어 그 피해가 밝혀지는데 따로 가공할 부작용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다. 〈계속. 다음은 나가사끼 이야기를 싣습니다〉